

한미 FTA 투쟁 1년과

연초에 날아온 미국발 폭풍 노무현 대통령은 올해 1월 18일 신년연설을 통해 한미 FTA를 추진하겠다는 예고없는 선언을 하며 국민들을 어리둥절하게 만들었다. 대통령의 언급이후 한미 FTA는 급물살을 타며 진행되기 시작했고, 2월 2일에 열린 공청회는 짜여진 각본에 의해 진행되었고 제대로 시작도 되지 않은 상황에서 방청인들의 항의에 외교통상부 실무자들은 답변도 없이 공청회의 중단을 선언하는 이름뿐인 공청회를 만들어내는 비민주적인 행태를 보여주기도 했다.

한농연을 비롯한 농민단체들은 작년 연말 홍콩에서 WTO 반대 시위를 벌이고 이후 협상을 지지부진하게 만드는 성과를 올리며 올해에는 통상협상으로 농업에 크게 영향을 미치는 사안은 없을 것으로 예견하고 있었지만, 이 뜻하지 않은 미국과의 FTA로 인해 농업은 또 다시 거대한 회용돌이 속으로 빠져들게 되었다.

한농연, 투쟁을 선포한다 칠레와의 FTA도 3년 이상의 연구와 협상, 국내대책 등을 논의하며 준비했는데, 세계 최강대국이라는 미국과 협상을 시작하면서 우리 정부의 준비가 턱없이 부족했다는 지적을 피할 수 없었다. 정태인 전 청와대 국민경제비서관조차도 자신의 재직시절에 그런 준비가 없었음을 폭로하는 상황에 이르게 되었다.

11월 22일 백만 총권기

| 대외협력실 송기호 실장 |

뿐만 아니라 정부 산하 국책연구기관에서조차 미국과의 FTA로 인한 농업분야의 피해가 2조에서 8조8천 억원이라는 막대한 피해가 있을 것임을 스스로 밝히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한농연은 2월 21일 전국 시군구 동시다발 결의대회를 열고 한미 FTA에 대한 반대입장을 천명하며 대정부 투쟁을 전개하기로 결의하였다.

한미 FTA로 시민사회단체들의 연대는 강화되었다 한미 FTA에 앞서 우리 정부는 미국에게 이른바 4대 선결과제를 내주게 되었다. 특히 스크린쿼터 축소방침은 영화인들의 극렬한 반대에 직면하게 되었고 한미 FTA 반대투쟁에 선봉에 서게 하였다. 스타급 연예인들을 동원한 문화제, 1인 시위 등은 연일 언론을 타게 되었고 사회적 이슈를 만들기에 충분했다.

스크린쿼터 축소방침과 함께 미국산 광우병 쇠고기 수입재개 방침에 따라 농민단체도 투쟁의 선봉에 합류하게 되었다. 안전성이 입증되지도 않은 쇠고기 수입재개는 국민들에게 충분히 FTA 반대입장을 알려주는 연결고리가 되었다.

이런 영화인들과 농민단체들이 함께 하면서 그 파급효과는 더욱 커지고 연대단체를 구성하는 계기가 되었다. 한농연을 비롯한 36개의 농민단체들은 3월 9일 “한미 FTA 농축수산물 비상대책위원회”를 결성하였고, 영화인들도 “문화침략저지 및 스크린쿼터사수 영화인대책위” 2월 1일 발족시켰다.

이후 보건의료, 교육, 학술, 여성, 소비자 등 각분야에 걸친 대책위가 건설되었고 마침내 3월 28일 270여개의 단체가 함께 하는 범국민운동본부가 결성되기에 이르렀다.

투쟁은 계속되었다 4월 15일 한미 FTA 저지 범국민운동본부 주최로 첫 대규모 집회를 개최하였다. 이날은 전체 1만여명이 참가했으며, 이번 집회를 통해 사회적인 이슈로 한미 FTA를 공론화하는 장이 되었다는 평가다.

또한, 미국 워싱턴에서 1차 본협상이 개시되는 시점에 맞춰 미국 원정투쟁단을 파견하며 협상상대국인 미국에서 우리 국민들의 의견을 직접 전달하는 투쟁을 전개하였다. 이번 첫 원정투쟁에 한농연은 가장 많은 8명의 투쟁단을 파견했으며, 서울에서는 6월 3일 종묘에서 총력결의대회를 전개하였다.

2차 협상에 시기인 7월 12일에는 서청 앞 광장에서 3만여명이 집결한 가운데 농축수산인 2차 결의대회와 범국민대회를 연속해서 진행되었다. 이런 강력한 대규모 집회를 통해 한미 FTA에 대한 50% 이상의 반대여론을 형성하는데 성공하면서 운동진영의 사회적 영향력을 강화시키는 계기를 만들게 되었다.

다시 9월 6일부터 미국에서 열리는 3차 협상에 맞춰 3차 범국민대회를 시군 단위로 전개하며, 어느 단체보다도 적극적으로 한농연은 거의 전 시군구에서 조직적인 참가로 대회를 성공적으로 치르게 되었다. 이번 3차 협상에서도 미국 원정투쟁단을 범국본 차원으로 조직해서 협상기간 동안 시애틀 협상장 인근에서 반대운동을 전개하였다.

마지막으로 10월 23일부터 제주도에서 열리는 4차 협상에 맞춰 국내 원정투쟁을 전개하게 되었다. 한농연은 가장 많은 750여명의 제주원정투쟁단을 파견하며 조직적인 역량을 모았고, 이번 원정투쟁으로 한동안 잠잠했던 한미 FTA를 다시 수면 위로 올려 사회적 이슈로 부각시키는 성과를 올리게 되었다.

11월 22일 100만 총궐기로 반대여론을 주도 하자

계속 팽팽하게 전개되고 있는 찬반 여론을 1년간 투쟁의 성과를 집약시켜 이제 강한 반대여론을 형성해서 한미 FTA가 우리 경제에 백해 무익하다는 자명한 사실을 전 국민이 인식하게 되는 계기를 만들어야 한다.

정부는 50여억원을 들여 한미 FTA 홍보를 강화하고 있지만, 국민들의 판단은 냉철했고 북핵문제로 안보논리로 인해 미국과의 FTA 체결에 힘이 모아지는 듯했지만 이마저도 쉽게 찬성여론으로 돌아서지 않는 모습을 국민들은 보여주고 있는 실정이다.

100만 총궐기 성사로 농업 포기하는 통상협상을 중단시켜야 한다

칠레와의 FTA, 현재 미국 그리고 연이은 FTA를 추진하려는 정부의 협상은 우리 농업개방을 따라야 하는 것이다. 당사자인 농민들과의 합의 없이 진행되는 이러한 FTA를 이번 미국과의 FTA 체결 중단으로 FTA가 경제발전을 저해하고 국민들의 삶의 질을 낮출수 있다는 점을 부각시키고 농업의 중요성에 대한 사회적 공감대를 형성하는데 주력해야 할 것이다.

특히, 막대한 보조금을 지급하면서 자국의 농산물 수출에 혈안이 되어있는 미국의 이전 협상상대국들의 전례와 스위스의 단호한 협상 중단 등은 우리에게 시사하는 바가 명확하며, 우리도 국민들의 힘으로 미국과의 FTA를 중단시켜 우리 경제의 방향을 사회양극화 해소와 농업분야 보호 등으로 대전환을 이뤄야 할 것이다.